

학술분야소식

◆ 학술위원회 ◆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에 **崔翔默**교수(서울대 齒大) 선임

지난 14일 분과학회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치협은 지난 14일 분과학회장회의를 소집하고 공석중인 학술담당 부회장에 대한 치주과학회 회장이며, 서울대 치대 치주과학 교수인 **崔翔默**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임 했다.

이날 분과학회장 회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 분과학회장회의 회의록 ◇

○일 시 : 1985년 5월 14일(화) 12:00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세미나실 (1층)

○참석자 : 이영옥, 장익태, 최상목, 민병일, 유동수, 이종훈, 임창윤, 최호영, 손동수, 김황중, 김서동, 이종률, 김정균, 남동석, 김종열, 최부병, 장영규, 이상철(대 김여갑)

1. 개회선언 : 이영옥 협회장

회 장 : 공사로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분과학회장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학술담당부회장의 사의로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출 방법에 대해 토의하여 주시고 결정에 따라 선출하겠으니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학술담당부회장의 보선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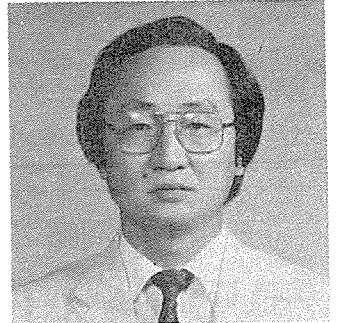
지난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없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학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분석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회 장 : 그렇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학회장들의 요청에 따르겠습니다.

김종열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동의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결정에 따라 이영옥 협회장과 유동수 전 학술담당부회장 및 기타 참석자들은 퇴장하였음.



장영규: 할 이야기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회장들이 의논한 끝에 어려운 시기에 십자가를 지게 하여 미안합니다만 최상목 위원을 선출 하였습니다.

*참석한 분과학회장 전원이 의견일치의 표시로 찬의를 표함.

회 장: 학회장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 선출해 주신 최상목 학술담당부회장과 협의하여 학회 발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으니 운영에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지적하여 시정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최상목 학술담당부회장 인사: 본의아니게 학술담당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었습니다. 보수 교육이나 치과전문의 문제등 학술파트에 산적된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된 학술부문의 문제해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술담당부회장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협회장 밑에 학술운영위원회(협의회)를 설치, 광범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며, 앞으로 학술담당부회장으로서 협회 이사회와 분과학회장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치주과학회 제24차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성료
회장에 崔翔默교수, 부회장에 任鶴淳, 尹興烈씨 선임.

학술이사: 정종평(서울대 치대)
편집이사: 한수부(서울대 치대)
섭외이사: 이창부(서울 오성치과의원)
간 사: 권영혁, 채중규, 황광세, 서영수, 박준봉.

대한치주과학회는 지난 4월30일서울 엠버써더호텔 회의실에서 제24차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회원 80여명이 모인 동 총회는 먼저 경희대 치대 최부병교수의 “보철치료에 있어 치주조직에 대한 고려”에 대한 학술강연이 있었고, 이어 총회에 들어가 943만원의 결산액을 승인한후 임원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에서 새 회장에 崔翔默교수(서울대)와 부회장에 任鶴淳(제1), 尹興烈(제2)씨를 각각 선임하고 사업계획토의 및 예산안심의에서 1,330여 만원을 확정했다.

또한 중점 사업으로

- 對 國民 치주병 홍보강화.
- 지부 확대활성화.
- 실질회원의 확충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동 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최상목(서울대 치대)
부 회 장: 임학순(서울 계흥치과의원)
부 회 장: 윤홍열(치협 국제이사)
총무이사: 김종관(연세대 치대)
재무이사: 김우성(서울 충무치과의원)

◎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일합동으로 지난 4일 힐튼 호텔에서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李永玉)에서는 지난 5월 4일 힐튼호텔 회의실에서 1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학술강연회장〉

- 한국측에서의 연자와 연제는
 - 1) 도재용착 주조금관의 금속설계
김기환 교수(연세대)
 - 2) 정밀부착형 국소의치
김광남(서울대)
- 일본측에서의 연자와 연제
 - 1) 약기능에 대한 정신생리학적 고찰
히로유키후지 교수(나가사끼대)
 - 2) 총의치 교합에 대한 종합적 고찰
나오유키 마쓰모토(도꾸시마대)

◎ 제 2 차 한·일합동 악안면방사선 학 세미나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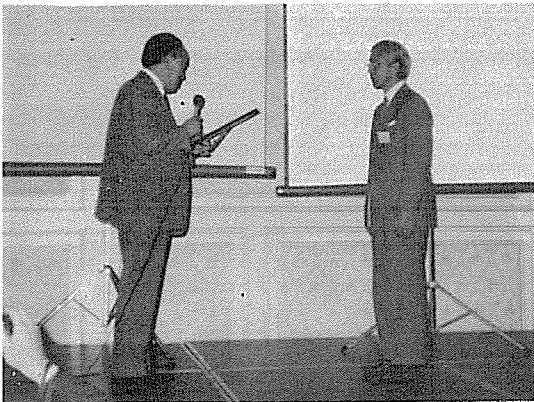
主 題 : 上皮腫瘍, 内外會員 150여명 참가

大韓顎顔面放射線學會(회장 劉東洙)와 日本齒科放射線學會(회장 후지끼 요시시게)의 제 2 차 합동세미나가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올림피아호텔에서 성황리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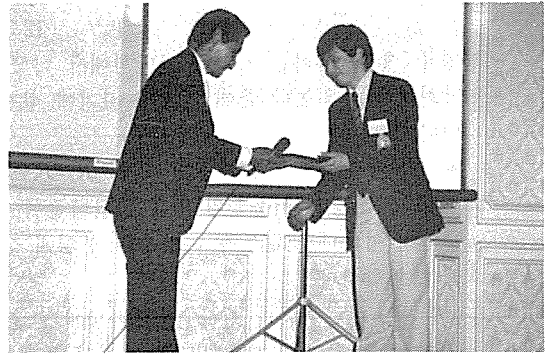
「상피성 치계종양」을 주제로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측에서 70여명, 日本측에서 50여명이 참가했는데 주제연제에 따른 한국측 연자로 朴兌源, 林昌潤 교수가, 일본측연자로 고세끼(大阪齒大), 이마이(아사이치대), 이시다(大阪大치학부)교수등 5명의 연자가 학술강연을 진행했다.

합동세미나는 주제연제외에 이상래, 김재덕, 나경수 교수등 한국 3연제, 일본 6연제의 9개일반연제가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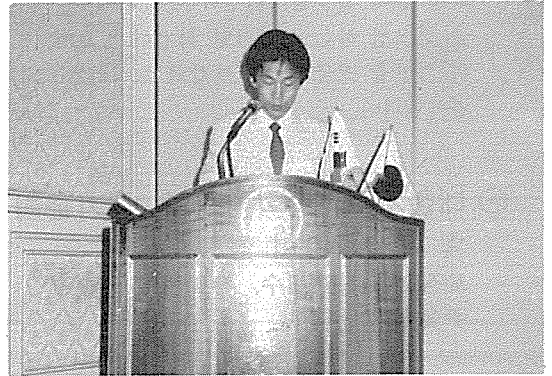
한편 이날 제 3 회 합동세미나는 내년 7월 19~20일 日本에서 갖기로 하고 대회장에 후루모도씨를선임했다.



〈준비위원장 안형규 교수가 일본 Ashahi대 Fujiki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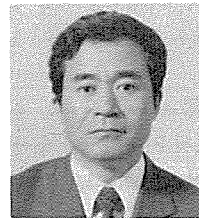


〈유동수 회장이 일본측 연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측 김재덕교수(조선대)의 강연장면〉

◎ 대한치과기재학회 학술집담회 성료



大韓齒科器材學會(회장 李鍾律)는 지난 11일 서울치대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회원당 연회비를 2만원씩(평생회원17명 제외)으로 책정하는 한편 회원확충을 위해 집행부가 총력기

(회장 이종울 박사) 로 다짐했다.

이사회는 또 연 1회 이상의 학회지 발간사업과 계획된 학술집담회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열린 올회기 첫 학술집담 및 보수교육은 33명의 회원이 참가, 「임상 치과의사를 위한 수종의 치과재료」(鮮于良國 단국치대학장) 연제가 관심깊게 진행됐는데 7월중에 열린 다음 학술집담회의 연제는 「치과용 세멘트」(金哲偉 서울치대교수)로 내정했다.

◎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 8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대한치과이식학회(회장 金鴻基)에서는 지난 18일 힐튼호텔에서 198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2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목균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동학회는 한국측에서 金鴻基회장이, 일본측에서 Nikuni Toshihiko회장이 각각 自國學會의 현황 발표가 있었으며, 韓·日 兩國에서 各各 8個 演題가 발표되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18시부터 열린 총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받아들여졌고, 금년도 학술상에 연세대 치대 辛聖浩회원에게 수여됐으며 연구 지원비 50만원도 같이 지급되었다.

이어 열린 디-너쇼에는 16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식행사를 마치고 즐거운 디너쇼〉

◎ 악안면성형외과학회 제24차 정기 총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회장 李相喆)에서는 지난 18일 맘모스호텔 회의실에서 6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00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안과 85년도 사업계획을 집행부 안대로 승인 하였으며, 이날 학회석상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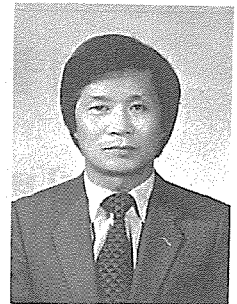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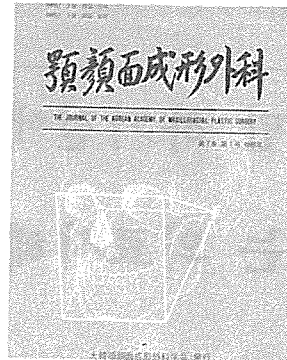
- 공 로 패 : 조영필 전회장, 이의웅 전부회장.
- 특별공로패 : 김수남(한림대의대부속성심병원 부원장)
- 표 창 패 : 박형식(85년도 박사학위 수상자)
- 감 사 패 : 서태수(치협회지 편집차장)

이보다 앞서 열린 학술강연회는 전주예수병원 두경부의과 박윤규교장의 “두경부의과의 재건술에 있어서의 Myocutaneous flap”에 대한 특별강연외 16개의 일반연제가 발표되었다.

또한 동 학회는 85년도 학회지를 발간했는데 2편의 연구논문과 15편의 증례보고가 게재되어 악안



〈85년 학술대회장과 정기총회 장면〉



〈이상철 회장파, 회지 7권 1호〉

면성형외과학계의 연구열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166면에 이르는 동 회지는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연구단체에 배포됐다.

◎ 치협 치의학용어제정심의위원회 개최

치의학 용어제정심의위원회(위원장 金英海)에서는 지난 1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심의된 용어에 대한 가인쇄된 용어집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재심의 했다.

이번 심의로 용어제정에 관한 거의가 일단 정리 단계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작업의 방대성으로 보아 앞으로 2,3회에 걸친 심의를 더 거쳐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 Pierre Fauchard Academy 한국회 제6회 총회 및 특별강연회 개최

P. F. A.한국회(회장 奇昌德)가 지난 4일 프라자호텔 회의실에서 金鴻基사무총장 사회로 제6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를 알차게 마쳤다. 특히 P.F. A.日本部會 金田義夫 會長을 비롯한 8명의 회원도 자리를 함께한 동 총회에서는 정관 일부를 개정, 국제이사직을 신설키로 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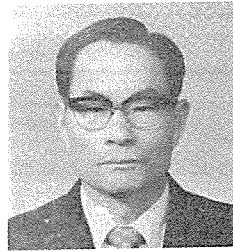
또한 이날 정기총회는 10명의 신입회원의 가입을 승인하는 한편 년 4회 학술강연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동 학국회에서는 학술연마에 정진을 위해 학술연구 지원비로 200만원의 연구비도 지급되었는데, 첫 수여자는 崔牧均박사(가톨릭의대 치과학교실 주임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제6회 정기총회장〉

◎ 李亨卓회원 貴한 圖書 351卷 기증



부산치과의사회 소속 李亨卓회원이 自身이 소장하고 있는 圖書 351卷을 치협에 기증했다.

협회사 편찬에 대한 자료 수집에 진력하고 있는 치협 으로서는 이 도서기증을 계기로 많은 자료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증된 주요 도서는 •만선치계 70권, •공치 2권, •구강외과학회지 9권, •한국치과공론 9권 등이다.

李亨卓회원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개원하고 있으며 長男 李炳泰박사가 부산대 치대 교정학교수로 재직중이며, 次男 李仁宰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하고 현재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불평불만 하기전에
신뢰받는 의료시혜**

**내자신을 돌아보자
밝아오는 우리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화추진위원회〉